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275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 회의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부 회원사 모임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광주 용인 이천 모임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성료
- (사)한국포장협회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생 모집
- 일진팩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 동원시스템즈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오리온 ISO 14001 인증 획득
- (주)유상 8월부터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 운영

업계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 (사)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개최
-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공식 출범
- K-PRINT 2022 8월 25일 개막
- 라인메세(주) 'K 2022' 설명회 개최
- 상동화(주) 엡손 디지털 라벨 인쇄기 신제품 공개



(사)한국포장협회

제275차 이사회 개최

일진팩 회원 가입 승인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7월 12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제27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보고의 건,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계획 보고의 건, ▲협회 창립 30주년사 제작 진행의 건, ▲터키 유라시아팩 한국관 참가의 건, ▲해외 전시회 참관단 파견의 건, ▲포장인포럼 진행의 건, ▲제33차 정기총회 장소의 건, ▲신입회원 가입 심의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사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있으므로 협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우선 10월에 개최되는 터키 유라시아팩 한국관에 적극 참여하고, 도쿄팩, 시카고팩 등의 해외 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해 글로벌시장 동향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포장인포럼, 정기총회 등 회원사가 동참할 수 있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한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일진팩(대표이사 전준호)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7월 12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제27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275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 |
|--|--|
| 1.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보고
- 설문조사 등으로 교육 보강 | 6. 포장인포럼 진행의 건
- 온라인 포럼 진행 |
| 2.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계획 보고
- 교육 참가 독려 | 7. 제33차 정기총회 장소의 건
-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선정 |
| 3. 협회 창립 30주년사 제작 진행의 건
- 협회와 업계 내용을 조화해 서술 | 8. 신입회원 가입 심의
- 일진팩 가입 승인 |
| 4. 터키 유라시아팩 한국관 참가의 건
- 지속적 참가 독려 | 9. 기타사항
- 지역 모임 활성화
- 회원사간 교류 및 상생 |
| 5. 해외 전시회 참관단 파견
- 글로벌 트렌드 파악 중요 |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 회의 개최

원부자재 가격인상 어려움...사용자 반영 잘 안 돼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7월 13일(수)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회의를 열었다.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7월 13일(수)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도 사용자 측의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회원사들은 공존 공생하기 위해 회원사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잉크 원부자재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잉크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잉크분과는 회원사간 협업 방법을 모색하고 과당 경쟁을 지양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부 회원사 모임 가져

회원사 간 유대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 방안 논의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부(지부장 김보철)는 지난 7월 5일(화) 경기도 화성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목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협회 회장인 임경호 세미산업(주) 대표이사, 김보철 (주)진명하이텍 대표이사 등 모두 12개 회원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부(지부장 김보철)가 지난 7월 5일(화) 경기도 화성에서 지역 회원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인 회원사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류의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경호 회장은 “협회는 지역모임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회원 확대, 협회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협회 내 우수운영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화성지부의 친목활동이 정기적인 모임 뿐 아니라 회원사 방문과 교류 등 다양한 친목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광주 용인 이천 모임 가져

회원 확대 및 정기모임 진행

(사)한국포장협회 광주 용인 이천지역모임(지부장 임이중)이 지난달 25일 근지암 소재 우해정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이중 지부장을 비롯한 9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원 확대, 정기모임 활성화, 회원 간 협업, 과당경쟁 지양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임이중 지부장은 “광주지역에만 300여개 업체가 산재해 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체가 없어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당경쟁으로 서로 힘들어지고 있다”며 회원사 확대에 주력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협력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부(지부장 김보철)가 지난 7월 5일(화) 경기도 화성에서 지역 회원사 모임을 가졌다.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용인 이천 지역모임은 신입 임이중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사 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 지역 모임은 홀수달 4번째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성료

57명 수료, 총 2,975명 배출...수료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

(사) 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성료했다.

이번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는 60명이 신청해 57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주)한국알미늄 이용선 부장이 총 1백점 만점에 94.5점을 기록해 1등으로 수료했으며, 이어서 애경산업(주) 김갑모 팀장이 2등(94.2점), 뉴팩코퍼레이션 김상원 사원과 (주)HPM글로벌 이유진 사원이 공동 3등(93.6점)으로 수료하며 우수성적 수료자로 선정됐다.

한국포장협회는 7월 14일(목)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교육



▲ (사)한국포장협회는 7월 14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자들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수료자들로부터 교육 수료에 대한 소감과 교육의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37기 교육에서 57명이 수료함에 따라 협회에서 배출한 포장기술관리사는 총 2,975명이 되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생 모집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8월 26일(금) 접수 마감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생을 모집한다.

▲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내용 및 일정

주 별	기 간	과 목	문제지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22. 8. 29~9. 2	• 포장개요 • 지류포장	22. 8. 29	22. 9. 10
제 2 주	22. 9. 5~9	• 플라스틱 포장재	22. 9. 5	22. 9. 17
제 3 주	22. 9. 12~16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22. 9. 13	22. 9. 24
제 4 주	22. 9. 19~23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22. 9. 19	22. 10. 1
제 5 주	22. 9. 26~30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22. 9. 26	22.10. 8
제 6 주	22. 10. 3~7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22. 10. 4	22. 10. 15
제 7 주	22. 10. 10~14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22. 10. 11	22. 10. 22
제 8 주	22. 10. 17~21	• 포장기계	22.10. 17	22. 10. 29
제 9 주	22. 10. 24~28	• 포장과 환경	22. 10. 24	22. 11. 5
제10주	22. 10. 31~11.4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22. 10. 31	22. 11. 12
제11주	22. 11. 7~11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22. 11. 7	22. 11. 19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22. 11. 14	22. 11. 26
최종심의 완료			22. 12. 6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 관리사증 발송	22. 12. 16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두산전자기기

1986년 8월 11일 창립 36주년

삼흥산업(주)

1982년 8월 20일 창립 40주년

[주]씨오백

2001년 8월 15일 창립 21주년

[주]유상

1976년 8월 20일 창립 46주년

일진알텍(주)

2007년 8월 1일 창립 15주년

일진팩

2009년 8월 11일 창립 13주년

[주]태방파텍

1998년 8월 17일 창립 24주년

[주]한두패키지

2000년 8월 1일 창립 22주년

한국포장협회는 지난 2002년 정부로부터 포장인력양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국고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포장인력 양성을 위한 14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매년 반기별로 1회씩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생 제1기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제37기까지 총 2,975명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8월 26일(금)까지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 연구소 및 단체는 40만 원, 포장협회 회원사는 32만 원,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4년제 또는 2년제)은 20만 원이다.

교육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한국포장협회(TEL 02-2026-8655, <http://kopa.or.kr/>)로 하면 된다.

일진팩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식품 및 공산품 등 각종 연포장 전문기업

일진팩(대표 전준호)이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일진팩은 지난 30년간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등 식품 포장재와 공산품 포장재를 생산·공급해 온 연포장 전문기업이다.

일진팩 관계자는 “일진팩은 선진화된 기술을 꾸준히 도입해 차별화된 포장문화를 열어가고 있으며 고기능 및 고품의성을 부여한 보다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연포장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진팩

주소 : 본사/1공장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대곶로484번길 43-67

2공장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비석동로50번길 122-26

주요생산품목 : 합성수지 포장지

전화 : 031-984-4782 팩스 : 031-984-4786

홈페이지 : www.ijpack.com

동원시스템즈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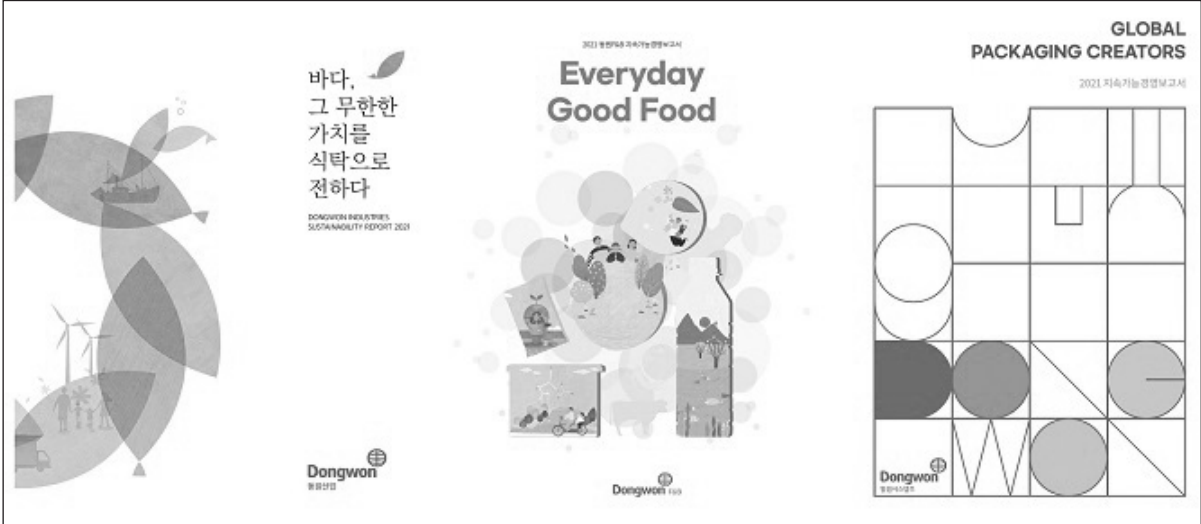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비전을 집약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는 2021년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와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각사 사업 특성에 맞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며 수산업계 지속가능경영을 이끌고 있는 동원산업은 ‘미래의 바다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유통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논의하는 회의체 ‘SeaBOS’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이사회 산하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원F&B는 지난해 6월 건강한 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동원F&B는 ‘친환경 제품 매출 1,000억원 달성’,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5% 절감’, ‘산업안전 보건경영 확립’ 등 ESG 3대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이행 내역과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소비재 전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전 사업장의 탄소 배출



▲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량을 '0'으로 감축해나가겠다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전 사업장에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기술제품' 친환경 포장재와 친환경 배터리로 주목 받는 이차 전지의 소재 사업에도 진출하며 첨단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각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제 3자 검증을 거쳤다.

동원그룹은 수산, 식품, 포장재, 물류 등 4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산업그룹으로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3개 상장사와 40여개 계열사를 영위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창업이념인 '성실한 기업활동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비전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ESG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계열사별로 ESG 목표를 수립하고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으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동원그룹 상장 3사의 '2021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각 계열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리온

ISO 14001 인증 획득

본사 및 청주·익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오리온은 본사 및 청주·익산공장, 감자연구소 등 주요 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

증을 획득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6월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본사 사옥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최인권 지씨티인증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업의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환경경영시스템 적합성 및 실행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오리온은 친환경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 내 표준화된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오리온은 그룹 경영방침인 윤리경영에 기반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청주공장 'Only 오리온' 분임조가 스낵 제조공정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도 완료했다.

올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데이터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및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각각 선정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전사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다양한 친환경 활동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며, "환경까지 고려한 경영활동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리온은 본사 및 청주·익산공장, 감자연구소 등 주요 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주)유상

8월부터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 운영

유해한 유기 화합물 배출 없는 친환경 인쇄 방식

(주)유상(대표 신동욱)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에 160억을 투자하여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안산 제2공장에서 8월부터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일 윈드필러사에서 제작된 1호기(10도 인쇄)는 시운전을 마치고 8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며 2호기(8도 인쇄)는 7월에 도입되어 설치 작업 중이며 10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쇄 기계 2대가 동시 가동되면 친환경 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월 800만 m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성 플렉소 잉크를 이용한 포장재 제조 기술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녹색인증제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포장재를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녹색마크를 도입하여 수요자측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진행 중에 있다.

기존 그라비아 인쇄는 음각제판을 통해 인쇄하는 방식으로 잉크 사용량이 많지만, 플렉소 인쇄는 고무 수지판 양각 제판에 수성잉크를 전이시켜 인쇄하는 방식으로 잉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라비아 인쇄는 유기 용제를 사용해 빠른 건조와 미세한 인쇄가 장점이지만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해 환경오염과 저감 장치에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반면, 플렉소 수성인쇄는 수성(물성분)잉크를 사용해 유해한 유기 화합물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인쇄 방식이며, 휘발성 잔류용제 검출이 거의 없고 화재 및 현장 작업 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플렉소 인쇄는 제판실린더가 기존 그라비아 대비 50~70% 경량으로 준비교체 시 작업자들의 노동강도



▲ (주)유상은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안산 제2공장에서 8월부터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 감소될 뿐 아니라 준비교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플렉소 인쇄는 기술습득 기간이 짧고 작업 표준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술자 양성이 쉽다. 따라서 그라비아 기술자 구인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ESG 경영 일환으로 탄소배출감소와 환경오염 감소에 적합한 친환경 플렉소 수성인쇄가 국내 주요 대기업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그라비아 인쇄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고, 향후 국내 연포장 패키징 산업에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주)유상에서는 주요 식품 업체들과 ESG 친환경 경영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재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맺고 포장재에 사용하는 용제 타입 잉크보다 친환경적인 수성잉크로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 확대와 디자인 개발 및 인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오리온에서도 플렉소 수성 인쇄기를 도입해 주요 제품에 적용 운영 중이고, 잉크와 유기용제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 제품 중 80%에 플렉소 인쇄 포장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오뚜기에서도 최근 자회사에서 도입한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를 이용해 주요 제품과 라면 포장재에도 적극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포장 분야는 그라비아 인쇄 방식에서 친환경 플렉소 수성 잉크 타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럽, 미주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 차단 관련 플렉소 인쇄 기계 사용률이 80%를 넘고 있어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성 잉크

사용 인쇄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주)유상에서는 “자체 연구소와 관련 업체와 연구 협약을 맺어 다양한 용도의 포장재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며, 친환경 포장재 생산으로 탄소배출감소, 유해물질저감, 유기화학물질 배출 제로화에 선도적으로 나아가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친환경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유상은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안산 제2공장에서 8월부터 플렉소 수성 인쇄 기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실무회의의 정례화 하기로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는 지난 7월 21일(목) 연합회 사무국인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합회 오선진 전무이사를 비롯해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회, (사)한국포장학회,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단체들은 서로의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또, 향후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각 단체들이 연합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는 한국 패키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도모, 소속 단체 간의 공동 정책연구 및 활용, 업계 네트워크 강화, R&D 사업, 포장관련 법규의 재·개정, 공동 번영 등을 목표로 지난 2016년에 창립됐다.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는 7월 21일(목) 연합회 사무국인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개최

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개 부문 공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6월 16일(목)부터 8월 16일(화)까지 약 2개월 간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공모전은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9회째 실시 중

신청대상으로 기초지자체 부문은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광역지자체 제외)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문은 각 150세대·200세대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pjs@pkg.or.kr)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홍보전략팀(02-6948-87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우수사례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 10월 말경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내역은 환경부 장관상(부문별 1개소·500만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부문별 1개소·300만원), 공제조합 이사장상(부문별 2개소·200만원) 등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총 상금 3,600만원을 수여한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탈바꿈시키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6.16~8.1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 6. 16 ~ 8. 16.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g.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와 공적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제출방법 전자우편 pjs@pkg.or.kr
 문의사항 홍보전략팀 02-6948-8721~2

포상내역

포상내역	개소	상금	비고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	3	각 500만원	부문별 각 1개소
우수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3	각 300만원	부문별 각 2개소
장려상 (공제조합 이사장상)	6	각 200만원	부문별 각 2개소
계	12	총 3,600만원	

신청자격
 종이백·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메트폼,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초지자체
 * 기존 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외

공모분야 **신청자격** **신청주체**

공동주택단지	150세대 이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단독주택단지	200세대 이상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기초지자체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제외)	기초지자체

주최 KPRC 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은 8월 16일(화)까지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7월 20일 출범식 열고 공식 출범

멸균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협력체 구축

증가하는 멸균팩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멸균팩 자원순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멸균팩 최종생산업체와 원생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사단법인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Korea Aseptic Carton Recycling Association; KACRA, 회장 테트라팩 코리아 부사장 오재항)가 지난 7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협회 회원사 11곳과 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멸균팩 최종생산업체와 원생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9월 창립됐으며 2022년 5월 환경부의 정식인가를 받았다. 협회 회원사는 총 11곳으로, 임원사인 테트라팩 코리아, 매일유업, 삼영제지, 세종YMCA와 회원사인 SIG콤비블록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삼육식품,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연세유업, 남양유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회원사 외에도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유가공협회, 소비자



▲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가 7월 20일 협회 회원사 11곳과 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후행동, 아이쿱생협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멸균팩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하고, 멸균팩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및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협회는 멸균팩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정책 과제와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도 힘을 예정이다.

또한 멸균팩 회수 선별 및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고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연대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멸균팩 100% 재활용 선포식’을 진행하고, 2025년 30%, 2030년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멸균팩 재활용 실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재활용 업체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오재항 회장은 이날 “멸균팩 재활용의 선순환에 앞장서 온 산업 및 소비 주체가 모여 사단법인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를 설립했다”며, “멸균팩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부터 기술 개발 보급,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멸균팩 자원순환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이 가능하고 유통과 보관이 용이한 멸균팩의 사용량은 지속해서 증가 중으로 2020년 2만 7053톤의 배출량을 기록해, 2025년을 기점으로 멸균팩 배출량이 일반팩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멸균팩은 일반팩과 함께 종이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률이 낮았으나, 2021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해 멸균팩을 일반팩과 분리해 배출 및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는 4개 지자체와 함께 6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K-PRINT 2022

인쇄산업의 미래를 여는 통합 솔루션

8월 25일 킨텍스에서 개막

새로운 인쇄기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K-PRINT 2022’가 오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한국이앤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경기관광공사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K-PRINT 2022는 인쇄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하여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giPrint), 한국텍스타일전시회(K-Textile), 한국사인·광고전시회(K-Sign&AD)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전문화, 세분화된 K-PRINT를 만날 수 있다.



▲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K-PRINT 2022'가 오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인쇄/패키지 트렌드를 반영한 K-PRINT 2022는 인쇄, 라벨, 패키지, 텍스타일, 사인 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이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제품 출시를 미뤄왔던 디지털 인쇄 관련 제조사들이 코로나 이후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 업그레이드한 인쇄/라벨/패키지/사인 관련 장비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화로 주목받고 있는 달리, 엡손, 코니카미놀타, RICOH, 바이텍테크놀로지, 벨로이, 산호기계, 두릭스, DKSH에서 디지털에 최적화된 라벨&패키징 장비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로타리/플렉소 라벨인쇄분야의 방성기계, 태경하이테크, 신우아이케이도 참가하며 에이스기계, 골든팩키지, 시노하라코리아, 문우사, 서울다이컷팅, 바인텍, 명신물산, 태우정밀은 최신 기술이 탑재된 패키징 솔루션 및 박스 패키징 기술을 선보인다.

실사출력 및 텍스타일 분야의 엡손, hp, 코스텍, 비투비디지털, 창대햇멜시트, 재현테크, 케이엠테크, 씨엠테크, 티.피.엠, 휴프라임, 마카스시스템, 헤

드윈, 맨프로텍, 인터아치, HRT는 다양한 UV인쇄기 및 전사프린터 제품을 선보이고, 한일듀프로, 비즈템, 와이피엘, 타코플러스, 이스텍솔루션, 한마루시스템, 이즈유, 광창기계는 후가공 솔루션을 전시·소개한다. 이와 함께 K-PRINT 사무국에서는 실질적인 구매 바이어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은 물론, 지역 바이어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인쇄 조합 및 단

체들과 협력하여 무료셔틀버스도 제공한다.

격년으로 개최되던 K-PRINT는 급변하는 인쇄시장에 발맞춰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군과 접목되는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인쇄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로 거듭났다.

특히, 융복합 인쇄기술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벨/패키지 관련기기, 인쇄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디지털인쇄, 텍스타일인쇄, 포장인쇄관련 첨단기술을 전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인 'K-PRINT Live!'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K-PRINT 홈페이지에서 8월 24일(수)까지 전시회 사전등록을 마치면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세한 안내는 전시회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PRINT 2022 사무국(전화: 02-551-0102)이나 홈페이지(www.kprint.kr)를 이용하면 된다.

라인메세(주)

‘K 2022’ 설명회 개최

플라스틱 · 고무산업 최신 동향 공유

오는 10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 고무 산업전시회 ‘K’의 개막을 앞두고 한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K’의 한국대표부 라인메세(주)(대표이사 박정미)는 지난 7월 5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시회 주요 구성정보와 플라스틱 · 고무산업의 글로벌 현황과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 협단체, 미디어 등 약 8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K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늠케 했다.

먼저 설명회는 전시회 주최사인 메세 뒤셀도르프의 게르노트 링글링(Gernot Ringling) 아시아 지사장과 율리히 라이펜회이저(Ulich Reifenhäuser) K 2022 전시사 자문위원장의 전시 소개로 시작했다.

게르노트 링글링 아시아 지사장은 “K 2022는 세계 플라스틱과 고무 업계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시사와 방문객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첨단기술과 혁신을 선보이고 관련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 2022는 18개 전시홀에서 ▲기계 및 장비, ▲원재료 및 보조재료, ▲반제품 및 기술부품 등 플라스틱 · 고무 관련 제품과 솔루션들이 소개된다.

게르노트 링글링 아시아 지사장은 “K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힌다”며 “올해 전시회는 당면 과제인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순환경제, ▲기후보호, ▲디지털화 등 3가지 대주제로 기획, 진행된다”고 밝혔다.

율리히 라이펜회이저 전시사 자문위원장은 “K 2022는 변신의 과정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 고무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 줄 것”이라며 “최근 플라스틱 · 고무업계는 순환경제와 기후보호를 위해 폴리머 재료를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가공단계 연결망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K 2022는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인메세(주) 박정미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K 전시회 방문을 고려하고 있거나 플라스틱 · 고무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기 원하는 전문가 그룹에게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라인메세(주) 대표이사 박정미는 7월 5일(화) K 2022 설명회를 열고 전시회 주요 구성정보와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 세계 61개국에서 3,000여 개 사가 참가하는 'K 2022'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며, 전시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플라스틱·고무산업 관련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K 2022'의 한국대표부 라인메세(주)(02-798-4343, sjlee@messe.co.kr)로 문의하면 된다.

상동화(주)

엡손 디지털 라벨 인쇄기 신제품

'K-Print 2022'에서 공식 론칭

상동화(주)(대표이사 김원기)가 지난 7월 20일(수) 서울 중구 스테이락호텔에서 세계적 인쇄장비 제조기업인 엡손(EPSON)의 디지털 라벨 인쇄기 'SurePress L-6534VW'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동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엡손

SurePress L-6534VW는 반복적인 고속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라벨 인쇄기로, 'PrecisionCore'라 인 헤드와 정품 UV 잉크를 탑재해 분당 50미터의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쇄를 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엡손 SurePress L-6534VW는 프린트 헤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청소가 가능해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며, 모든 노즐은 청소 직후와 인쇄 직전에 점검되며 필요한 경우 헤드 유지 보수가 자동으로 수행되어 작업자의 중단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 개발된 멀티 바니시(Varnish) 기술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바니시 잉크를 컬러 인쇄 후에 적용하여 무광택과 광택 있는 질감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엡손의 UV 잉크에는 고농축 안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LED-UV 고정과 결합하여 넓은 색 영역과 생생한 인쇄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상동화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K-Print 2022'에서 SurePress L-6534VW를 공식 론칭할 예정이다.



▲ 상동화(주)(대표이사 김원기)가 7월 20일(수) 엡손(EPSON)의 디지털 라벨 인쇄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